

[사회]

전남도 공무원 광주~무안 출·퇴근 기름값 실험

시속 130~150km 5만~5만5천원
시속 80~90km 3만~3만5천원

최근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초고유가 시대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배기량 2천cc 승용차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청사까지(광주시 서구 운수IC ~ 전남도청간 고속도로·국도 포함 왕복 139.2km 기준) 주행할 때의 속도에 따른 기름값 변화추이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주행 속도에 따라 기름 소모량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시속 130~140km일 경우 5만~5만5천원 ▲시속 120km는 4만~4만5천원 ▲시속 80~90km는 3만~3만5천원의 기름값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2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 행진이 장기화되면서 공무원들의 출장 및 출퇴근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장거리 출장 때 기름값이 많이 드는 자가용 대신 버스나 열차를 이용하고, 출퇴근 때도 통근버스나 카풀을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부쩍 늘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경제속도를 준수하는 '한 템포 느린 운전법'이 확산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자가용을 탈 경우에도 경제속도를 지키며 '에코 드라이빙(Eco driving)'을 실천하는 등 기름값을 아끼기 위한 유(油)테크 아이디어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청에서 거리가 가장 먼 여수의 경우, 버스를 이용하면 4만8천원(왕복 고속버스 요금 2만8천원+관내 교통비 2만원) 정도면 되지만 자가용을 몰고 가면 기름값만 5만4천~6만원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출장이 잦은 건설재난관리국 직원들은 상당수가 출장시 교통수단을 버스로 바꿨다.
출퇴근 패턴도 달라졌다. 광주에

거주하는 전남도 공무원들은 월요일에 목포에 내려와 금요일에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월요일에는 통근버스가 만원을 이룬다. 평일에 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들도 예전보다 늘었고 승용차 이용자들도 카풀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광주에서 목포까지 버스요금만 1만4000원이지만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기름값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포함 중형은 3만원대, 대형은 4만~5만원이 필요하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의 경우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춰 출·퇴근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부터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 박모(40)씨는 "더위 때문에 아침 일찍 나서고 있지만 기름값도 아끼고 운동까지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정후식·채희중기자 who@

폭염 식혀주는 비 7월 28일 (음 6월 26일) <전국날씨>

날씨 예보 및 전국 날씨 지도. 서울, 광주, 부산 등 주요 도시의 날씨와 기온, 강수량, 바람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 날씨: 구름 많고 소나기 24~31°C, 비 0.5~1.5m.

美쇠고기, 호주산 둔갑 판매 장관고시 이후 광주 첫 적발

광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 식육점이 적발됐다. 지난달 26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장관 고시 이후 광주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 식육점 주인 박모(32)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일주일 전 광주시 남구 봉

선동 자신의 식육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갈비살 10kg가량을 인근 음식점 업주에게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박씨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구입 경위와 허위 표시된 미 쇠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경우처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유통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최근 단속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이나 화초 주변에 묻는 자연장(自然葬) 묘지인 '청마루 동산'이 광주시 효령동 영락공원에 조성돼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가짜 한우' 음식점 상대 오늘 손배소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상무지구 H 음식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8일 광주지법에 제기한 다.
27일 광주경실련과 광주YMCA에 따르면 H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했던 기간에 이 음식점을 이용한 피해자 22명을 대신해 이날 오후 손해배상 소송 서류를 광주지법에 제출한다.
두 단체는 이번 소송에 대해 "음식점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라며 "또한 정부의 강력한 단

속을 촉구하고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 선례를 남기는 것도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고 밝혔다.
두 단체는 해당 업소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함께 제기할 계획이며, 민사소송은 광주YMCA 시민권익변호인단의 노강규 변호사, 형사소송은 광주경실련 법률지원단 이정학 변호사가 맡는다.
한편 식약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6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을 벌여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H 음식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온 것을 적발, 영장집지 처분을 내렸었다.
/안현주기자 ahj@

광주 내달부터 자연葬 가능

영락공원내 '청마루 동산' 조성 완료

광주 영락공원 내 '청마루 동산' 조성 공사(본보 6월27일자 9면)가 마무리돼 다음달부터 광주에서도 자연장(自然葬)이 본격 운영된다.
광주시는 27일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 내에 자연장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청마루 동산 조성공사가 최근 완료돼 다음달 1일부터 매장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청마루 동산은 8천700㎡의 규모로 정원장, 잔디장, 가족장 등 테마별로 구성됐으며 1만5천위를 안치할 수 있다. 새로 조성된 자연장지는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다음달 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1기당 34만8천 원이다. 사용기간은 일반 분묘나 봉안당과 같은 45년이며 기간 만료된 사용권한은 시로 이관된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

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제도.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게 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나 흙, 용기 이외의 유품은 묻을 수 없다.
용기 크기는 바깥지름과 높이가 각각 20c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기는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시는 용기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자연장은 매장과 달리 국토잡식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환경친화적인 장묘 방식"이라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버스전용차로 평일에만 운영 어때요?

광주시 11월 시행 앞두고 의견 수렴 나서

광주시가 버스전용차로를 평일에만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여론수렴에 나선다.
광주시는 27일 "오는 11월부터 버스전용차로의 토요일 오전 운영을 해제하고 평일에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광주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행정예고하고 28일부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제는 그동안 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5시30분~7시30분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중 운영했으나 11월부터는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확대로 토요일 오전 버스 이용객과 교통량이 감소하는 등 교통패턴의 변화가

가속화돼 버스전용차로제의 효과가 줄어들어 따라 토요일 오전 운영을 폐지해 자가용 및 택시 등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 버스전용차로는 ▲대남로 농성광장~남광주사거리 9.8km ▲서문로 광주대 입구~백운광장 4.6km ▲죽봉로 동문고교~농성광장 5.8km ▲필문로 서방사거리~조대앞사거리 6.0km ▲서암로 서방사거리~경산고교사거리 6.4km ▲북문로 동림동 장애인복지회관~동문고교 1.6km ▲남문로 용산초교 앞~노동청사거리 3.4km, 남광주사거리~용산초교 앞 2.6km ▲상무로 옛 상무대입구~옛 서부경찰서사거리 7.0km 등 8개 노선 47.2km에 이른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무허가 음식점 등 107곳 적발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전사·판매한 행위 100여곳이 적발됐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14~25일 도내 여름철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업소 932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07곳이 규정을 어기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행위 등이다.
전남도는 영랑 백수해안도로와 여수 소호지구 등에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무허가 음식점 28곳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42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렸다.
/채희중기자 chae@

임대 내. 무등빌딩. 위치: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0-2. 연락처: 에이취에이취개발(주) (062)412-6230

금보부동산컨설팅. (02)261-8949. (011)602-2233. (신수동 543-511 두리터대문앞 신거리)

산행안내. 7월 29일(화) T.011-625-2458. 7월 31일(목) T.011-625-2458. 7월 30일(수) T.011-625-2458. 8월 2일(토) T.011-625-2458.

다양한 부동산 광고. T.011-609-7159. T.010-9776-3630. T.011-642-5197. T.011-629-2678. T.010-2613-9566.